

雲門

불기 2562년
여름호
통권 제 145호
雲門寺僧伽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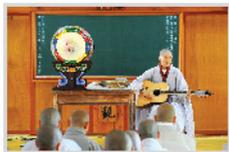
구름문을 펼치다

- ⊗ 장마가 이렇게 시원한 것은 지난해 지독한 가뭄 덕인가 봅니다. / 대교과 대호
- ⊗ 시원한 소나기와 찬란한 농소화가 아름다운 운문의 여름입니다. 나날이 기쁘고 행복한 수행자 됩시다. / 대교과 도행
- ⊗ 자유자재! 여름은 여름대로 여름껏 무더울 것.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껏 땀 흘릴 것. / 사교과 성경
- ⊗ 시원한 오이 같은 도반들이 있기에 이 여름도 Go! Go! 夏☆ / 사교과 석인
- ⊗ 가사 장삼은 흐르는 땀에 젖어가도 마음은 쾌청하게 관세음보살~ / 사집과 범성
- ⊗ 맑은 바람 부는 큰 전각에서의 두 번째 여름. 높고 파란 하늘, 흰 구름, 무성하게 자라는 채마밭에서 맞는 첫 바람에 도반들과 웃습니다. / 사집과 법운
- ⊗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언제나 바람처럼 지나간다. / 사집과 선덕
- ⊗ 폭폭 찜는 더운 여름, 주르륵 땀방울. 호거산 솔바람과 도반들 웃음소리로 이겨내 보렵니다. / 사미니과 이수
- ⊗ 녹음이 짙어가고 우리의 치문도 조금은 깊어져 갑니다. / 사미니과 서안
- ⊗ 여름 소나기 같은 시원시원한 맘으로 살아보아요! / 사미니과 범응

雲門

목차

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평성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행위가 그대의 신분이다 동우
08	교수논단	계箴 톺아 보기 ① 지성
12	학인논단	죽음 이후 저승에서 벌어지는 49일간의 여정 석인
17	想	맑고 향기롭게 인우
18	선배탐방	꾸준하게, 안개비에 옷이 젖듯 - 9회 졸업 광주 연회사 주지 명신 스님 탐방기 동호
21	만남	법륜 스님, 운문사 즉문즉설 편집부
24	운문만행	숨과 마음을 보며 쉬어가는 곳 사마타·위빠사나 수행처 '뚫다선원' ② 혜정
29	깨달음으로 가는 길	혼자 행복해도 되는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가 편집부
30	수행의 두레박 하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해동
32	수행의 두레박 둘	금강석과 같은 마음 병성
34	수행의 두레박 셋	지금 이 자리에서 향광
36	수행의 두레박 넷	영화 쿤툼을 보셨습니까? 대호
38	운문, 운문인	여름나기 편집부
40	차레법문	나의 '如是降伏其心' 정안
42	특별기고	운문사 해외유출 성보문화재 <칠성도>의 귀환 진광
46	외부기고	다이너마이트 뚫다 강호진
50	이 한권의 책	Active Hope 실천하는 희망 유덕
52	운문논평	배려, 함께 살기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밥 편집부



제악막작 중선봉행
諸惡莫作 衆善奉行

명성 / 운문사 회주



2018년 5월 10일 스승의 날 행사, 사교반 스님들이 선물한 사랑목걸이를 하신 회주스님.

오늘은 도림 선사道林禪師와 백낙천白樂天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당대唐代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유명한 백낙천이 항주의 자사刺史로 부임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백낙천은 항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찰에 도림 선사라는 훌륭한 고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들을 목적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림 선사는 경내의 노송 위에 올라가 좌선을 하곤 했는데 마침 이 때도 늙은 소나무 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를 본 백낙천은 “스님! 거처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라고 하니 선사는 “음, 내가 보기엔 자네가 더 위험해 보이는 걸.”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백낙천은 “저는 이미 벼슬이 자사에 올랐으며,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땅을 밟고 있는데 무엇이 위험하다 하시는지요.” 하며 의아해하였습니다. 그의 자만심을 안타깝게 여긴 선사가 “부질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로 교만심과 번뇌와 탐욕이 쉬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백낙천은 “그렇다면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가르침을 청하게 됩니다.

도림 선사가 백낙천을 위해 하신 법문은 바로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입니다. 모든 악한 것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만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백낙천이 실망하여 “스님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니 선사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낙천은 이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인스님들도 혹시 도림 선사의 법문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거나 싱겁다고 생각되시나요.

이 가르침을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라고 하는데 과거칠불의 공통적인 가르침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계송입니다. 진리는 거창하거나 심오하여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인물이 좋거나 또는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금세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리석음이 작동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증장시키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착하지 못한 업을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자기 자신을 휩쓸어가는 것, 이것을 도림 선사께서는 위험해 보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그것이 정치적인 일이거나 경제·문화·환경 생태에 관한 일이거나 그 어떠한 문제도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좋은 일을 실천하고, 각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고 맑게 하는 것 말고 무슨 묘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수행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 학인스님들이여! 모조록 모든 일에 입각하여 진실하게 사는 것(卽事而眞)이 바로 불자다운 자세입니다. ☸

행위가 그대의 신분이다

동우 / 운문승가대학 부교수

“신심信心으로써 욕락欲樂을 버리고 일찍 발심發心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孤高하게 걸어서 가라.”

3주일간의 사미니계 수계 산림 동안 매일매일 몇 차례씩 독송했던 계송이다.

제법 세월이 흘렀는데도 모두 함께 낭랑한 소리로 읊조리던 이 글귀가 그 시절의 신심을 생생히 기억나게 한다. 부처님의 제자이며 지계持戒 제일로 알려진 우바리 존자의 계송이라고 한다.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유일하게 천민 계급인 수드라 출신이었다.

석가족의 왕자들이 출가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이발사였던 우바리는 자신도 출가의 길을 가리라 결심한다. 이 때 부처님께서 우바리를 먼저 출가시킴으로써, 우바리가 왕자들보다 더 윗자리에 앉게 된다. 승가의 위계는 출가한 순서에 의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 규율이기 때문이다.

당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바다의 물맛은 늘 하나이다. 우리 승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평등한 그들에게 올바른 법과 율이라는 한 가지 맛을 줄 뿐이다.

명심하라. 계를 받은 순서 역시 예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신분과 귀천은 없다.

인연에 따라 사대四대가 합해져 몸이라 부르지만,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비어 '나' 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진실하고 성스러운 법과 율을 따르고 절대 교만하지 말라.”

지금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뿌리 깊은 인도 사회의 계급제도를 2600여 년 전에 부정해 버린 부처님의 안목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인간의 고귀함이란 태어난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숫타니파타」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그대로 자신의 가치가 된다.

인간의 고귀함이란 태어난 신분 혹은 획득한 권력과 부,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으로는 누구나 동의할 만한 말이다.

그러나 세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갑질’ 논쟁들을 접하면서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우리들의 뿌리 깊은 어리석음과 교만을 본다. 그 바탕에는 ‘나’ 아닌 것들을 ‘나’로 착각하는 무지와 졸렬함이 깔려 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는 지혜가 아니면 고귀한 인간의 가치 그대로의 삶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욕락을 버린 발심출가자들의 고고한 발걸음이 더더욱 소중한 고귀하게 여겨지는 시절이다. 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유혹할 수 없는 당당함이 그리운 것이다. 자신의 행위 밖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신분이 바로 ‘출가 수행자’가 아닐까.

출가의 결모양새만으로 수행자의 신분이라 할 수 없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행위가 우리의 신분이니 말이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가만히 돌이켜본다.

낭랑하게 계승을 읊조리던 시절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어지지 않았는지,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진실하고 성스러운 법과 율을 따르는 승가의 일원으로서 당당한지.

무더운 여름날 갑작스레 투둑투둑! 떨어지는 쿵은 소낙비 소리에 화들짝 놀라듯, 문득 잊었던 시절의 계승을 되뇌며 내딛는 나의 발걸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

계戒 톱아 보기 1

지성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 I. 시작하는 말
- II. 戒律이란 무엇인가
- III. 계란 무엇인가
- IV. 계의 전통적인 정의
- V. 끝맺는 말

I. 시작하는 말

소론의 제목을 “계戒 톱아 보기”라고 했다. 톱아 본다는 뜻은 ‘살살이 더듬어 가면서 살펴보다’는 의미이다. 학인들과 함께 계율을 공부한 세월을 돌아보니 다시금 계율을 살살이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보았다. 수행자에게 계율은 자신의 살림살이와 대중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출가 사문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출가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행위이다. 그러기 위해 이제껏 익혀왔던 습관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수행공동체와 더불어 물과 우유처럼 섞여 수순하며 살아야 한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은 사후약방 문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이러한 것은 절대금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승가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수범수제隨犯隨制라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계와 율 가운데 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II. 戒律이란 무엇인가

1. 계戒란

계는 불교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이며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데 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계戒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완화시켜 준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여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불교도로서 계를 지킨다는 것은 당위성에 해당하며 스스로의 안락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될 것이다.

불교를 신앙으로 믿고 실천하는 자로서 계를 받고 또 계를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며 실천하려는 것은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계는 규칙이 아니므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계를 받으며 자발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수행자로서 계를 지키지 않고 범한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불교도라고 자칭한다면 주위로부터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율律이란

율律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율이란 승려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수행자의 법률

이라고 할 수 있다. 율은 타율적이고 엄밀한 규칙이므로 승려가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율은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출가공동체의 조직인 승가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규율이 되며, 좁은 시각으로 보면 승려 개개인이 악에 물들지 않고 선업善業을 닦아서 세간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금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율은 승가라는 조직을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하여 그리고 불교를 후세에 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붓다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율은 승려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낱낱의 세세한 내용은 재가 신도와는 관계가 없고 재가자가 알 필요가 없는 특질을 가진다.

이처럼 계와 율은 의미와 내용이 전혀 다른 개별적인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계율」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졌는데, 「하천河川」이나 「산수算數」처럼 각각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 복합어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계戒는 ‘율律의 낱낱 조항’이고, 율律은 ‘계戒의 집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개념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오해와 혼동은 불교가 중국을 거쳐 들어오면서 계와 율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III. 계란 무엇인가

1. 칠불통계七佛通戒偈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밝혀라.

이것이 모든 붓다의 가르침이다

Sabbapāpassa akaraṇaṃ,
Kusalassa upasampadā
Sacittapariyodapanam,
Etaṃ buddhāna sāsanaṃ.¹⁾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²⁾

위의 계송은 대승과 소승에 모두 통용된다. “불교란 무엇인가”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낸 문장이다. 과거 일곱 부처님이 수지했다고 하여 七佛通戒偈라고 하는데, 우선 모든 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모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스스로의 마음을 맑힌다. 이것은 부처가 된 자는 누구나 설하셨고 또한 설하신 가르침이다. 그러면 어떻게 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일까? 그것은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2. 방비지악防非止惡

계戒란 “두다” 혹은 “보전하다”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와 팔리어인 √sīl에서 파생했다는 산스크리트 sīla 혹은 팔리어 sīla의 한역어다. 의미는 원 뜻인 “장소”나 “그릇(용기)”에서 나온 “습관” 혹은 “행위”를 가리키는데, 한역불전에서는 이를 음사하여 “시라尸羅”라고 한다.

계戒는 “방비지악防非止惡” 즉 그릇됨을 막고 악을 그친다는 뜻인데 일상생활에서 악을 멀리하여 그릇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계는 자신과 타인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나쁜 행위를 그쳐서 선한 쪽으로 다가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일상에서의 마음가짐인데 이는 항상 지켜야만 의미가 있으므로 일시적이거나 하루만 지켜서는 의미가 없다.

1) KN, 『Dhammapada』, 『Buddhavaggo』, 183.

2) 『增一阿含經』(T2, P551a)

3. 삼학三學 -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다리-

계戒 正定 혜慧의 삼학이 있다. 이것은 각각 “금계禁戒를 지키는 일상생활”로써 “그치는 삶(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³⁾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사물에 대하여 또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진실함을 아는 지혜(깨달음어 아는 삶)인 두 가지를 실천하는 지관止觀의 수행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戒는 대지大地”이며, “정定은 큰 나무(大樹)”이고, “혜慧는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지가 없다면 나무의 뿌리도 열매도 없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계를 지키는 생활이어야만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지혜가 생기게 된다. 계라는 것이 불교에서의 실천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천단계를 시설했다는 점이다.

제가자라면 계를, 출가 수행자는 계와 율을 실천하여 수행해 나아간다면 “나는 불교도이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호언하지 않아도 된다. 불교도로서 계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아주 근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일이다. 계의 그릇이 온전해야 정定の 달이 뜨고 정이 이루어지면 지혜가 저절로 증만해진다.

4. 자발적이다

계는 율과 달리 자발적인 결의에 의거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원칙과 지표가 되어주는 마음가짐이므로 이를 어긴다고 해서 그 어떤 벌칙도 주어지지 않는다. 계는 스스로의 결심에 따라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지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계를 지킬 때, 아무런 까닭도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충분히 납득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잘 몰라도 실제로 계를 지

키며 생활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 니 처음부터 납득하여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력하고 실천해 가는 도중에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는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강제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IV. 계의 전통적인 정의

1. 소승의 전적典籍에 나타난 계의 정의

부파불교에 있어서 전통적인 계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고래로 대승(Mahayāna)의 입장에서 소승(Hīnayāna) 혹은 성문승(Śrāvakayāna)이라고 일컬어졌던 부파불교 가운데 단독으로 현존하는 파派가 있다. 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전해져서 행해졌던 분별설부分別說部(Vibhajya-vādin)와 상좌부上座部(Theravāda) 등으로 통칭되는 파이다. 그 밖에 많은 부파는 인도에서 불교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인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Sarvāstivādināh)의 모든 전적과 학문, 계율의 전통이 티베트와 중국으로 전해졌으므로 지금 대승의 기반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대승의 기초를 이루어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설일체유부의 전적을 통하여 전통적인 계의 정의를 설한 부분을 원문에서 발췌해 보겠다. 더욱이 독자부(Vātsīputrīya)의 전적으로 볼 수 있는 계의 정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수필집이 있다.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담담하게 엮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과 조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좌부에서 분리된 설일체유부는 윤회의 주체로서 푸드갈라(Pudgala, 補特伽羅)라는 영혼과 유사한 실체를 상정하였다고 한다. 여러 부파의 교학 중에서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 푸드갈라에 대한 해석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부파들과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비교적 커다란 세력을 형성했으므로 이 부파로부터 나온 것이 알려졌던 것이다.⁴⁾

독자부의 한 부파인 정량부는 임청난 세력을 형성하였고 7세기 중엽부터 설일체유부나 상좌부, 대중부 등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신앙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당대唐代의 의정삼장義淨三藏이 기록한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 보고형식으로 상세히 전해지고 있다.

1) 분별설부分別說部 (상좌부)

분별설부에서 계에 대한 정의는 5부 니까야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쿛다카 니까야(Khuddaka Nikāya, 小部阿含)에 수록된 빠띠삼비다막가(Pāṭisambhidāmagga, 『無礙解道』)⁵⁾에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쿛다카 니까야』에 수록된 전적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 제목의 말미에 「경經」이라고는 붙이지 않는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경장經藏에 수록된 전적이고 불설佛說로서 받아들여졌으며 붓다가 설한 법을 사리불 존자가 광설했다고 한다.

무엇이 계戒인가? 사思(意志)가 계이다. 심소心所(智慧나 慈悲 등 여러 감정 마음작용)가

계이다. 율의律儀(제어하는 것)가 계이다. 무범無犯(죄가 없는 것)이 계이다.⁶⁾

위의 내용에 대하여 분별설부인 무외산파의 우파디씨優波底沙(Upatissa) 장로는 그의 저서 『해탈도론解脫道論』에 해석을 붙였다.

『역대삼보기』의 기록에 따르면 『해탈도론』은 중국 양나라 천감 14년(515), 현재 캄보디아 출신의 승가바라에 의해 한역된 것이다. 원전은 전해지지 않고 다만 한역본만 전해지고 있으며 그 일부인 「두타품」만이 9세기에 인도에서 티베트로 전해진 것을 티베트어로 번역된 것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해탈도론』의 원본이 언제 어디서 저술되었는 지 기록이 없으므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대 문헌학자들은 우선 연대에 관해서는 4세기 전후라고 추정하고 있다. 장소는 『해탈도론』 가운데 인도의 노예계층에 대한 언급이나 실론(스리랑카)의 지명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아시아에서 저술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탈도론』에는 우선 「담운하계자. 위사계위의계불월계. 答云何戒者. 謂思戒威儀戒不越戒」라는 위에서 들었던 『무애해도無礙解道』와 합치하는 (하지만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구절을 우선 인용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서술하고 주석의 요점만을 간추려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다음호에 계속)

4) <http://ja.wikipedia.org/wiki/설일체유부>

설일체유부는 붓다의 교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아비달마철학을 완성시켰다. 「육족론」, 「발지론」, 「대비바사론」, 「현종론」 등은 설일체유부의 교의를 서술한 대표적인 논서이다. 하지만 설일체유부가 구축한 교리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일탈하여 다른 부파나 대승불교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5) <http://ko.wikipedia.org/wiki/빠띠삼비다막가>-주로 4부 니까야를 인ونه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서이다.

6) KN, Pāṭisambhidāmagga 39

죽음 이후 저승에서 벌어지는 49일간의 여정 - 영화 <신과 함께>

석인 / 사교과

목차

I. 머리말

II. 본문

1. 중유와 49일
2. 업과 윤회사상
3. 시왕신앙
 - 1) 망자의 심판을 담당하는 10명의 대왕
 - 2) 지옥의 심판관 염라대왕

III. 맺음말

I. 머리말

요즈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전 <전설의 고향>에서나 등장했던 조연급 출연진- 귀신, 도깨비, 저승사자, 무속인, 도사 등 -이 주인공이 되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데 운명, 환생, 윤회는 필수가 되었으며, 관객들은 이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물질문명의 정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판타지¹⁾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차원 그래픽 기술의 발달로 육안肉眼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세계에 대한 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일까? 단순히 공포영화의 소재로만 사용되었던 오컬트적²⁾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양한 설정으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며, 감성적 스토리와 명대사로 관객들을 자신들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드디어, 누구나 가지만 아무도 본 적 없다는 그곳- 저승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2017년 12월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은 불교의 49재에 입각한 저승에서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 사람이 죽어 망자亡者가 되면 49일 동안은 이승의 존재도, 저승의 존재도 아닌 중음中陰의 존재가 된다. 이 기간 동안 일곱 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일곱 시왕의 심판을 모두 통과한 망자만이 다음 생으로 환생한다는 불교의 사후死後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불교와 우리의 민간신앙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글을 통해 불교의 관점에서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한다.

II. 본문

1. 중유와 49일

사십구재는 부파불교시대 한 학파인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の 사유설四有說에 의한 것이다. 사유설은 윤회의 삶을 시간적으로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 중유中有라는 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생유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을 말하며, 본유는 태어난 뒤 일정 기간을 사는 것을 말하고, 사유는 생을 마치는 순간을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을 끝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부파불교에서는 이 사유 다음에 중유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중유란 죽고 나서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를 말하는데, 중음中陰 또는 중음신中陰身이라고도 한다. 중음은 몸이 탈락되고 남은 미세한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영안靈眼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중유의 기간을 이 세계의 시간 기준으로 49일로 정하는데, 이때는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변화가 무척 크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 행해지는 불교의식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사십구재四十九齋이다. 49재는 다음 생을 받기 전에 중음신에게 마지막으로 훌륭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중음은 유연하고 영특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가르침을 잘 듣고 깨침을 얻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유기간은 재판으로 말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같은 상태여서 49재를 통해 신속하게 공덕을 쌓게 하고 아울러 집착을 버리게 해서 중음신이 보다 좋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업과 윤회사상

살아생전의 행위와 그 과보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지옥의 관념은 업業과 윤회輪廻를 강조하는 불교 및 인도사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업과 윤회사상은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의 전통사상으로, 윤회는 철저하게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다는 자업자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스스로 착한 일을 하였으면 착한 결과를 받고, 악한 일을 하였으면 악한 결과를 받는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 가듯,
죽음의 순간 무엇이 그를 따를 것인가?
인간은 현생에서 선행과 악행을 짓는다.
사는 동안 지은 이 두 가지가 자신의 것이며
오직 이 둘을 가지고 떠난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듯이,
죽는 순간 선행과 악행이 그를 따라간다.”
《상웃따 니까야》

생명체는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업을 짓고, 그 과보로 생사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선악업을 가지고 육도 - 천상 · 인간 · 아수라 · 축생 · 아귀 · 지옥 - 의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데, 지옥은 그 최하층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중생들을 악행에서 격리시키고 선을 중대시키기 위한 교화방

1) 판타지영화 (Fantasy film) -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줄거리에 가공의 사건, 등장인물 등을 혼성하여 극화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 공상 영화의 제작에는 일상생활에서와는 다른 물리적, 생태적인 법칙을 적용하여 신비로운 세계를 표현하게 되므로 특수 효과 촬영, 특수입수 촬영, 환상적인 색채나 분위기 등의 특수한 영화적 기법을 동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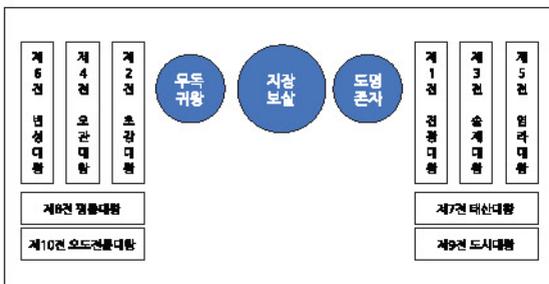
2) 오컬트(Occult) - 오컬트 또는 비학秘學은 물질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 · 초자연적 현상, 또는 그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편으로 윤회를 강조하였고, 악업의 과보로 받게 되는 지옥에서의 온갖 고통에 대한 묘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3. 시왕신앙

시왕신앙(十王信仰)은 인도 브라만교의 명부신(冥府信仰)이 불교에 영향을 끼치면서 체계화되었고 10세기경 중국에서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이 찬술되면서 하나의 신앙체제로 정립되었다. 이 경전에 따르면 인간이 죽으면 명부(冥府)로 가게 되는데 도중에 차례로 시왕을 만나 생전의 죄업을 심판받게 된다.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이지만 세속적인 권선징악의 요소가 짙기 때문에 한국의 선찰(禪刹)에서는 시왕전(十王殿), 명부전(冥府殿) 또는 지장전(地藏殿)에 그 조상(彫像)을 모시고 있다.

오늘날에는 시왕전과 명부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전각의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처음 생길 당시 전각의 중심점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왕전은 주로 시왕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명부전의 경우 그 초점이 지장보살과 시왕에 고르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명부전의 배치를 보면 가운데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봉안하여 삼존을 이루고, 삼존의 좌우로 시왕이 배치된다.



〈그림 1〉 지장삼존 및 십대왕의 배치

지장·시왕과 관련된 전각만 지장전, 명부전,

시왕전에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와 관련된 신앙의 규모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명부전에 모셔지는 시왕상의 크기도 거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각각의 불화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거대한 축 중 하나가 바로 지장·시왕인 셈이다. 이는 인간에 내재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동아시아의 강력한 조상 숭배 전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하겠다.

1) 망자의 심판을 담당하는 10명의 대왕

시왕(十王)은 재판관이자 각각의 지옥을 관장하는 독립된 군왕으로 각각의 전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불교가 동아시아의 전통신앙과 결합하면서 시왕의 역할이 증대된 결과로 시왕의 명호 앞에 붙는 '제1전', '제2전' 등이 바로 그러한 점을 의미한다.

10대왕 중 제1전 진광대왕부터 제7전 태산대왕까지는 망자를 7일에 한 번씩 차례로 심판한다. 결국 7명의 시왕이 총 49일에 걸쳐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49재이다. 그런데 불교가 동아시아에 정착하면서 동아시아 전통의 상례인 100일제와 1년 상인 소상(小祥)과 3년 상인 대상(大祥)을 치르는 문화와 섞이면서 3명의 재

	명부시왕	지옥이름	형벌내용	기 일
제1전	진광대왕	도산지옥	칼 산 오르기	1번째 7일
제2전	초강대왕	확탕지옥	끓는 물에 넣기	2번째 7일
제3전	송제대왕	한빙지옥	얼음 속에 가두기	3번째 7일
제4전	오관대왕	검수지옥	칼로 몸 베기	4번째 7일
제5전	염라대왕	발설지옥	집게로 혀 빼기	5번째 7일
제6전	변성대왕	독사지옥	독사가 물어먹기	6번째 7일
제7전	태산대왕	거해지옥	뜸으로 뼈 쪼개기	7번째 7일
제8전	평등대왕	철상지옥	회판에 올리기	100일째
제9전	도시대왕	풍토지옥	칼바람 맞기	1주년
제10전	오도전륜대왕	흑암지옥	암흑에 가두기	3주년

판관이 추가됨으로써 10대왕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당나라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시왕과 지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위의 표와 같다.

2) 지옥의 심판관 염라대왕

흔히 염라대왕閻羅大王은 너무나 익숙해서 한국 민담의 신으로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인도의 신화 속에 등장하며 동아시아와 공통된 점이다. 인도 시조始祖인 야마에 대한 음역이 염마閻魔 또는 염라閻羅이다. 야마는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죽게 되어 사후세계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사후세계 하면 땅속 명계冥界를 떠올린다. 그러나 야마의 세계는 지옥이 아닌 천상이다. 야마가 죽은 뒤에 죽은 자들의 왕이 되어 개척한 세계가 바로 야마천夜摩天이다. 야마천은 육계 6천 중 제3천에 속하는 높은 천상의 세계이다. 이것이 기원 전후에 남점부주 땅속 500유순 지점으로 옮겨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심판관 염라대왕이라는 위상이 확립된다.

인도의 야마는 붉은 옷에 왕관을 착용한 모습으로 양손에 각각 끈봉과 밧줄을 들고 물소를 타고 있다. 그러던 것이 중국에 와서 관복차림에 면류관冕旒冠을 쓰고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홀笏이나, 치부책과 붓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변형된다. 통도사 시왕도의 <염라대왕도>에서 염라대왕은 일월日月이 그려진 평천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염라대왕이 평천관을 쓰는 것은 시왕들 중 왕중의 왕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염라대왕이 제5전에 등장하는 것은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5가 중앙, 즉 핵심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염라대

왕의 도상적圖上的 특징 중 하나는 풍성한 수염인데, 이는 인도로부터의 기원이 분명한 염라대왕의 권위를 한층 더 높여 주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림 2> 통도사 시왕도-염라대왕도

III. 맺음말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리석음의 세계이다. 타종교처럼 선악을 구분 짓기 위해 천당의 반대 개념으로 지옥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 지옥은 악의 세계가 아닌 무지의 세계인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유무에 있다고 한다.

달리 표현하면 지옥은 죄인을 벌하는 곳이 아

3) 명부冥府 명도冥途, 명계冥界 또는 중유의 세계. 사람이 죽은 뒤에 간다는 영혼의 세계.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 곳.

4) 조상彫像 - 돌 또는 나무 따위를 파서 사람이나 동물을 새겨 신앙대상으로 조성한 것.

나라 자신이 지은 악업의 고통을 직접 느끼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어리석음을 돌이켜 새롭게 향상向上하여 태어날 수 있는 갱생更生의 기회를 얻는 곳인 것이다.

49재를 지낼 때 사찰에서는 시식도량施食道場을 세우고 영가靈駕⁵⁾에게 시식의식을 베푸는데, 시식이란 중유의 세계에 있는 영가에게 먹을 것과 진리의 가르침을 베풀어(法施) 준다는 뜻이다. 법시라는 것은 깨달은 이가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법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인데, 법의 실상을 알려주는 이유는 법의 실상을 잘못 알고 그에 집착하여 업을 짓고 끝없이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존재)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존재하는 행위는 무상無常하고, 존재하는 그것은 '나' 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無我라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존재의 주체와 존재의 행위에 대한 인식認識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 제법의 실상을 바르게 알려주게 되면, 영가는 이를 인식하는 순간 집착은 허물어지게 된다. 두려움을 떨쳐냈고, 배고픔을 달랬고, 이제 집착할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차린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집착이 사라진 자리 곧 정토淨土이다.

시식의 마지막은 영가를 보내는 봉송奉送의식인데, 영가의 위패나 옷 등을 불사름으로써 본래 무알물을 실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가에게 묻는다.

영가시여,
이제까지 베푼 시식의식에서 읊은 경전과 염불 공덕으로, 허망한 인연을 다 여의셨습니까? 여의지

못하셨습니까? 여의셨다면 극락세계에 마음대로 왕생하여 법락을 누리시고, 여의지 못하셨다면 다시 산승의 말후일계末後一偈를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말후일계 즉, 최후의 계송를 들려준다.

四大各離如夢中	사대가 흩어지니 간밤의 꿈이요
六塵心識本來空	육진 육식의 업힘 또한 본래 공이라
欲識佛祖回光處	부처와 조사께서 깨달으신 경지를 알고자 할진댄,
日落西山月出東	해는 서산으로 지고 달은 동쪽에서 떠오르네

길을 떠나는 영가에게 행여 헛된 망상으로 집착을 놓지 못하였을까봐 인생이 지난 밤 꿈과 같음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고 실상實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마지막까지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자비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건기, 『대승불교』, 부처님세상, 2006.
- 자현, 『사찰의 상징세계(하)』, 불광출판사, 2012.
- 허암, 『불교에서의 죽음 이후, 중음세계와 육도윤회』, 예문서원, 2015.
- 자현, 『불화의 비밀』, 조계종출판사, 2017.
- 이성운, 『불교의례』, 조계종출판사, 2018.

5) 영가靈駕 - 중음의 상태로 있을 때의 사람의 영靈. 가駕는 탈 것, 수레를 뜻하는 말로 갈 길을 찾아 움직이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 영가라고 이름한다.

화는 마른 슬픔처럼
조용히 태우고
기뻐하는 빛은 꽃잎처럼
말고 향기롭게



인

생각에
몰
앉아
중



꾸준하게, 안개비에 옷이 젖듯

- 9회 졸업 광주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 탐방기

동호 / 대교과

탐방이 결정되고 사전 조사를 해봤지만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도반스님의 강력한 탐방추천이 있었고, 시내에 위치하고, 유치원이 있고, 삼국유사의 일연 스님과 관련된 조각 기사들이 보이지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일단 뵈고 상황에 따라 탐방을 진행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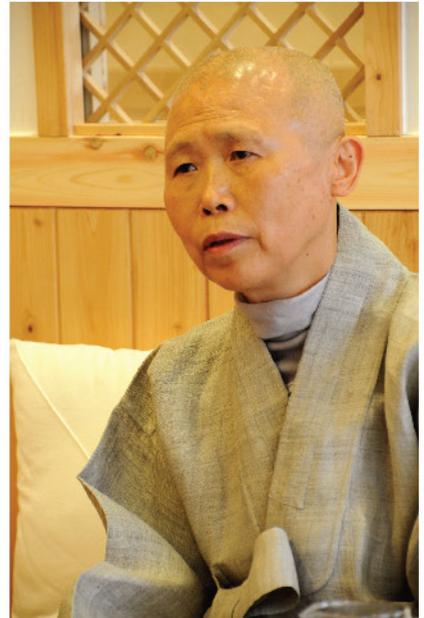
막상, 직접 눈으로 보는 연화사는 보물창고였습니다. 탑을 중심으로 주변의 집을 사들여 불사를 해온 연화사는 겉으로는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미로처럼 연결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한창 놀이와 공부 중이고, 2층에 자리한 널찍한 법당, 깔끔한



연화사 5층석탑, 통일신라, 보물 제110호

명상센터와 예쁜 구루미 찻집 등이 놀래주려고 작정을 한 듯 숨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원장스님, 어린이집 원장스님, 명상센터장 스님 세 분은 7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소임을 살고 있었습니다. 각 분야를 전공한 스님들이고 법당, 무인찻집 등에서 소임을 사는 스님들이 또 있습니다. 스님들의 활달하고 유쾌한 모습에서 각 활동들이 잘 운영되고 있음이 느껴졌고, 이 모든 살림을 원용하게 받쳐주는 주지스님이 있는 연화사는 대중이 사는 절이었습니다.

6살에 동진 출가한 주지 명신 스님은 17살에 운문사에 와서 6년간 공부하고 29살부터 연화사 주지소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시대에 일연 스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무량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탑만 남았고 이 탑을 기점으로 연화사의 터를 잡았습니다. 사찰을 만들기에 앞서 1979년 유치원을 먼저 설립하였고, 주차장 옆의 작은 집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불사를 해왔습니다. 포교와 교육에 대한 원력으로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7년 전에 지금의 스님들이 오면서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명상센터, 다도, 어린이집 자모들과 함께 아침마다 108배를 하고 정기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3학급으로 5세, 6세, 7세 반을 운영하고, 어린이반은 3세, 4세 반이 있습니다. 명상센터는 상담심리 프로그램, 개인 상담, 니까야 공부 등 불교적인 가르침을 기본으로 명상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생활과 관련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광주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

사실 주지스님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절에 와서 아이들도 키우고, 운전하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벼, 포도 농사 등 안 해 본 것이 없습니다. 신도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봉사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신도도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좇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불사를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진 않았어요. 인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사를 하면서도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장애인 생일잔치를 30년 정도 해왔고, 고아원, 경로당 잔치,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반찬 봉사 등 많은 복지사업을 해왔습니다. 연화사의 삼재기도는 약간 다릅니다. 옷을 태우는 것 대신에 공양미를 올립니다. ‘자비신행’ 이라고 해서 200여명의 노인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보시한 것이 7, 8년 정도 됩니다.

스님은 강원 때부터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독송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3시에 일어나서 기

도를 하고 직접 도량식을 올립니다. 도량에서 제일 일이 많은 주지스님. 아직 손수 요리를 하고, 분갈이를 하고, 산도 매일같이 오릅니다. 매일같이 하는 기도정진은 스님의 힘입니다. 안개비에 옷이 젖듯 꾸준한 기도정진은 스님의 맑은 눈빛과 소탈한 말투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연화사를 단단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주지소임을 살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처님보다 좋은 법은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떠나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얻기 어려운 이 몸을 받아서 부처님 법 만난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큰 복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인연이고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바르게 살아야 해요. 또 부처님 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바른 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좋은 세상에 발심해서 출가했으니 ‘꼭 성불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수행했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이 부처님 법이고 신심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최선이고 소중해요. 작은 인연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안주정법 집지교화 安住正法 執持教化(바른 법으로 세상을 교화한다)’에서 따온 ‘주지(住持)’라는 말은 스님에게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님은 학인스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식발하고 부처님께 귀의한 것 자체가 잘 사는 것입니다. 승복 입고 강원 가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하니, 열심히 정진하세요. 신심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발원한 만큼 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호흡이 멈추었을 때 어떠한 것에도 끄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몇 번의 선배탐방을 하며 만나는 스님마다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소탈함, 반듯함, 부지런함입니다. 운문사에서 생활이 양식과 자선이 되어 마치 지금도 강원 에 있는 듯 몸에 밴 부지런함입니다. 탐방이라고 긴장한 것이 무색하게 ‘극빈대접’을 해주신 대선배님. 까마득한 후배들을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운문사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그분들의 최선을 다했던 강원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화사 명상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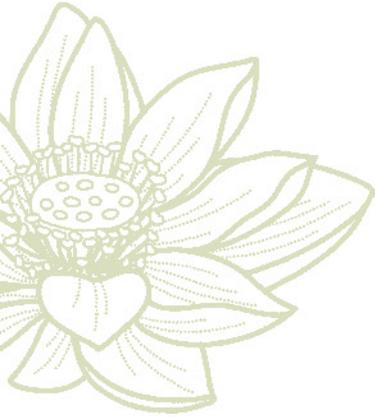
구루미 무인카페



연화사 유치원



연화어린이집



법륜 스님, 운문사 즉문즉설

편집부



그림 / 대교과 도행

정토회 법륜 스님이 봄방학 중에 국제참여불교연대 소속 동남아 스님 및 활동가들과 함께 운문사를 찾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 및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학인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소중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먼저 스님은 요즘 종단내의 시끄러운 문제와 관련해서 상심하는 학인들을 위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스님은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당시의 정치상황과 10·27법난을 피해 잠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노스님을 만납니다. 긴 시간 한국불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논두렁 밑에 앉아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그것이 절이야, 그것이 불교라네. 마음이 청정한 자가 승려이고, 논두렁 밑에 있어도 승려가 머무르는 곳이 절이네.”

스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열을 내고 있었구나.’ 대나무 아래서 죽림정사, 제따의 숲에서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부처님이 수행하던 곳에 바로 절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부터 제대로 출발해야겠다. 가정집이든 식당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법을 말하면 그 곳이 바로 절이다.’ 전세계, 전국에 몸을 나투는 신통력을 보이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의 활동이 시작된 동기입니다. 이 때의 노스님이 바로 서암 큰스님이십니다.

스님은 학인스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출가수행자인 학인답게 출가의 원칙을 찾고 경계에 꼬달리지 않는 공부를 해 주세요.”

Q 경제에 끄달리지 않는 것과 외면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다가 안되면 피하는 것이 외면이고, '내 맘대로 해라.'는 치우침입니다. 경제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 화, 미움 등이 없이 필요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아프면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싸움을 통할 수도 있고 모범을 펴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 앞에 소나무가 되라."는 은사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어릴 때는 담에 가려 있지만, 소나무가 자라면 담을 가리게 됩니다. 담때문이라며 아우성치기보다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아름답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개선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좋다고 느끼도록 해서 사람들을 바꾸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역시 젊어서는 싸워서 바꾸려고 했으나, 이제는 모델을 만들어 자라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Q 스님의 모델이란 어떤 것입니까?

붓다의 가르침은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우리를 해탈,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수행입니다. 철학으로 가서 학문으로 가거나, 종교로 가서 구복求福으로 가는 것, 모두 치우친 길입니다.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행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입는 것과 지는 것에 소박해야 합니다.

수행자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겸손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비굴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교만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자라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들떠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기부터 편해야 합니다. 수행자로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 수행공동체 정토회의 원칙입니다. 환경, 구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로서 사회적 필요에 응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도 초기 승가공동체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논의를 할 때는 삼의제三議制(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세 번까지 문제 제기하여 재론하는 것)와 발우공양을 하고, 공양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설사 만들어지더라도 지렁이 등 퇴비를 만들어 활용합니다.

Q 대중생활을 하는 학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좋은 감정으로 만나 결혼해 한 이불 덮고 자도 싸우는데! 연애감정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습관, 성격도 다른데 부딪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곳에서 갈등이 없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갈등에서 자유롭기 위해 경을 읽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하면 화나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규칙에 대해 내가 지키고 있으니 남은 모르겠다 혹은 너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역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만든 규칙에 대해서는 함께 가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앞으로 불교의 비전과 학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회가 급변하니까 예측불허지만 대략의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통일할 것이고 환경문제의 이슈가 갈수록 커질 것이고, 노인문제 등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인간사회의 번뇌는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먹고사는 문제를 벗어난 부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누었던 가르침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뇌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서,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 불교의 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해야 합니다. 도저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어떤 경제에서도 자유로운 경지로 갈 수 있습니다. 교리로 는 힘이 없습니다. 4년동안 여기서 겪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분노나 미움 없이 자신의 방향성을 잡는 경지로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승복과 위의만으로도 스님 노릇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실제적인 해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수행이 인류사회에 있어 최고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자로서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수행자라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들떠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기부터 편해야 합니다. 수행자로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 수행공동체 정토회의 원칙입니다. 환경, 구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로서 사회적 필요에 응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도 초기 승가공동체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논의를 할 때는 삼의제三議制(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세 번까지 문제 제기하여 재론하는 것)와 발우공양을 하고, 공양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설사 만들어지더라도 지렁이 등 퇴비를 만들어 활용합니다.

Q 대중생활을 하는 학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좋은 감정으로 만나 결혼해 한 이불 덮고 자도 싸우는데! 연애감정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습관, 성격도 다른데 부딪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곳에서 갈등이 없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갈등에서 자유롭기 위해 경을 읽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하면 화나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규칙에 대해 내가 지키고 있으니 남은 모르겠다 혹은 너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역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만든 규칙에 대해서는 함께 가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앞으로 불교의 비전과 학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회가 급변하니까 예측불허지만 대략의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통일할 것이고 환경문제의 이슈가 갈수록 커질 것이고, 노인문제 등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인간사회의 번뇌는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먹고사는 문제를 벗어난 부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누었던 가르침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뇌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서,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 불교의 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해야 합니다. 도저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어떤 경제에서도 자유로운 경지로 갈 수 있습니다. 교리로 는 힘이 없습니다. 4년동안 여기서 겪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분노나 미움 없이 자신의 방향성을 잡는 경지로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승복과 위외만으로도 스님 노릇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실제적인 해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수행이 인류사회에 있어 최고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자로서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편집자주

‘운문만행(雲門萬行)’란은 각처에서 활동하는 운문인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이곳 운문사에서의 공부를 자랑으로 삼아 훌륭하게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숨과 마음을 보며 쉬어가는 곳

사마타·위빠사나 수행처 ‘붓다선원’ ② 혜정 / 제54회 졸업

엣그제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렇게 운문지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글에 서는 제가 살고 있는 수행도량, 붓다선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읽는 분들이 쉽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상의 방문자 Q가 등장하는 시나리오 형식을 취했습니다.



바라밀당

#3. (바라밀당 앞. 각 방마다 십바라밀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 Q : 이 바라밀당은 새건물인 것 같은데요? 왜! 각방마다 화장실이 달려 있네요! 숙소인가요?
- 진경스님 : 네, 수행자 숙소예요. 이 곳에 온 2013년 그 해 겨울부터 바로 집중수행을 시작했어요. 한 컨테이너에 5명의 수행자들이 머물렀지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이 건물이 생겼고 지금은 50명의 수행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Q : 사회가 점점 살기 힘들고 불안해지면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륜 스님께서 이끄시는 정도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스님 :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자리타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회향하고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더 나은 것, 가장 불교적인 것, 궁극적인 것, 그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고 죽음의 순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회향하고 주기 위하여 현대불교의 역사는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불교적인 것을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사회봉사도 하시지만 붓다의 호흡법인 숨보기 수행도 지도하시고 권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소란하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청정하고 고탄수룩 타인도 쉽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정력은 생활 속 모든 곳에서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의 힘입니다.

Q : 근래에 불교의 명상과 심리치료를 결합하여 만든 다양한 형태의 명상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법들이 전통적인 수행법보다 사람들에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진경스님 : 생각하고 분석, 논증하기를 잘 해야 하는 교육문화에서 자란 현대인들에게 관념의 변화를 추구하는 명상법들과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행법들이 요구 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변형, 계발된 명상법들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신념이나 생각을 변화시키으로써 관념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변화, 습관의 변화, 진리의 통찰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수행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수행법들이 밀쳐지는 이유는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것 외에 값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굴절, 왜곡된 번뇌 때문이지, 사실 수행법 자체는 매우 원초적이고 단순 명료합니다. 복잡하게 길들여진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현대에는 물질의 풍요로 인해 정신적 평화를 추구하는 명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명상법들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명상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위빠사나 수행법은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러한 루트를 통해 한계를 넘고자하는 고귀한 사람들이 붓다의 바른 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요즘 자애명상이나 자비명상이 널리 실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명상들이 당장 위로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진경스님 : 자애명상은 3선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선정수행 주제입니다. 실제로 자애수행을 해보면 대단한 집중력의 요구를 느낄 것입니다. 수행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상을 향해 자애를 계발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내가 있다면 성념을 극복하고 자애선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Q : 네, 자애수행도 결국 선정력에 기반한 것이군요. 그런데, 한국의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우뚝 선 저 탑은 뭐예요?

진경스님 : 아쇼카석주인테 저희들은 '삼보탑' 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하고 물들고 타협하는 것을 주의하여 붓다의 바른 법이 이 땅에서 오래 실천되기를 서원하

고 발원하는 마음으로 삼보탑을 세웠습니다.

Q : 마치 미래의 불교에 대해 예언하는 답처럼 느껴집니다. 스님, 미래의 불교에서 사마타·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경스님 : 과학이 발달한 미래에는 과학적인 종교, 과학적인 수행법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과학의 아버지는 붓다' 라고 했듯이 불교는 정교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사마타·위빠사나 수행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연기를 통찰하면서 체계적으로 무아의 법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수행법입니다. 간화선은 결과를 향한 직관적인 수행법이지요. 성격이 다른 수행법을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사생아를 낳는 일이기애 이 두 수행법은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계종에서 사마타·위빠사나를 수용한다면 사마타·위빠사나를 발판으로 간화선을 이해하게 되고 각자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수행자들과의 단체 인터뷰가 있어요. 원하시면 함께 자리하셔도 됩니다.



삼보탑



어린이 템플스테이, 숨보기 명상시간

#4. (법인당 단체 인터뷰가 진행 중이다.)

수행자 M : 요즘은 숨이 미세해져서 알기가 오히려 어렵고 미세한 망상들도 더 많이 보여서 수행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숨을 크게 쉬어보곤 합니다.

진경스님 : 숨은 마음의 반영물이라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미세해집니다. 이 미세한 숨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섬세한 집중력이 계발됩니다. 거친 숨이 알기가 쉽지만 심오한 삼매가 계발되지는 못 하지요. 그러니 미세한 숨을 싫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어차림의 틈이 줄어들수록 더 자주 놓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혼란의 과정을 이해하고 바른 원인 짓기에 전념하면 차츰 바른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행자 F : 어제는 노란 빛이 눈앞에서 생겼는데 오늘은 하얀 목화솨 같은 것이 코끝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진경스님 : 그래요? 코끝에서 얼마나 머물렀나요?

수행자 F :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숨을 놓쳤네요.

정과 지혜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일상의 순간에서 고요와 지혜를 계발할 수 있습니다.

Q :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경스님 : 8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바른길을 걸을 때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정도는 체계적이고 따르기 쉽습니다. 4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와 사유로 몸과 말을 단속하며, 명상주제에 대한 바른 정진과 알아차림이 있을 때 바른 삼매가 일어납니다. 일어난 삼매는 바른 지혜가 깊어지도록 도와주고 깊어진 지혜에 의해서 번뇌가 얽어지면, 보다 쉽고 빠르게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관쌍수입니다. 사마타·위빠사나로 열반의 지혜에 도달하는 그 순간 8정도는 완성됩니다.

#6. (큰법당 앞. 사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내려다보인다.)

Q : 한글로 된 주련이 인상적입니다. ‘모든 악행을 멈추고 모든 선을 실천하여 마음을 깨끗이 함이 부처님 가르침일세’ ‘칠불통계계’ 맞지요? 부처님 가르침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진경스님 : 예, 그렇죠? 몸과 말을 단속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기 쉽고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하면 지혜수행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계·정·혜 3학이고 붓다께서 45년간 설하신 3학은 사마타·위빠사나 수행입니다.

Q : 승가에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지닌 김성철 교수님께서 ‘지금은 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정한 승가가 필요하다’ 고 말씀하신 것이 문득 기억납니다.

진경스님 : 맞습니다. 지금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은 계·정·혜 삼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통해 몸과 말을 청정히 하고, 선정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혜 수행을 통해 번뇌 버리기를 승가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승가는 타락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스님들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돕지 못한다면 참된 승가가 아니지요. 계율을 준수하고 수행으로 화합하는 승가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수행처가 많아져서 만족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스님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Q : 저 역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수행하러 와도 되지요?

진경스님 : 그럼요. 언제나 ‘Welcome!’ 입니다. ☸



숨

혼자 행복해도 되는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행복을 갈망하고 고통을 피하기 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 존재이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불행하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 달라이라마 존자 ❁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혜등 / 사미니과

행자시절 운문사에 계셨던 형님들이 치문반에 대해 이야기해주었고 치문은 강원에서 첫 해에 배우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 치문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에 들어와 치문책을 보니 한문이라 이해할 수 없었고 재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막상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한 자 한 자 뜻을 찾으니 조금씩 흥미가 생겼습니다. 교수님께 서 배우는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과 연관 지어 생활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위산대원선사경책 巍山大圓禪師警策』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염념신속 念念迅速하여 전식즉시내생 轉息卽是來生 이어나 하내안연공과 何乃晏然空過 리요. 찰나찰나가 신속하여 한 순간에 숨을 돌리면 곧 다음 생인테 어찌 편안히 있으면서 헛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그래 숨 한 번에 다음 생이라는데 숨 한 번 크게 쉬고 이미 다음 세상에 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화나고 짜증이 올라 올 때 숨 한 번 크게 쉬고 숨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화가 가라앉고 그 화는 과거가 되어 더 이상 현재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화가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숨과 마음은 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숨을 통해 선정에 이르셨습니다. 숨은 어디를 가든지 간편하게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숨을 잘 이용하면 번뇌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치문 한 철을 돌아보면 ‘내 숨은 어떤지?’ 그럴 여유조차 없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하니 실수를 하게 되고 주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살필 줄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치문을 배우면서 “전식즉시내생 轉息卽是來生”을 통해 숨을 바라보는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여유로 긴장감도 조금은 풀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조금씩 살필 수도 있었습니다.

탁났한 스님의 들숨에 ‘마음에는 평화’ 날숨에 ‘얼굴에는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가끔 사람들

에게 “심각해 보여요, 무슨 고민 있어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아무 고민도 심각한 일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내 표정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짓는 연습을 가끔씩 합니다.

이산혜연 선사 발원문 중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 내어…”처럼 내 얼굴에 미소와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보리마음을 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봄철 월암 스님의 특강 교재 중에서 고희의 『선요』에 화두참구를 할 때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 참구하여 깨닫는 내용을 말하자면, 마치 팔십 늙은이가 거꾸로 부는 바람과 물살을 향하여 밀 빠진 한 척의 쇠로 된 배를 끌고 가는 것과 같이,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깨치고 못 깨치는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틈이 없는 마음의 온전한 생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평생의 기량을 다하여 공부를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발 붙일 수 없는 곳,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때의 경계에 도달하면, 별안간 물살과 바람의 방향이 바뀔 터이니, 이곳이 곧 집에 도달한 소식입니다.”

이 글을 읽고 조금함 내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고자 하는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파도타기가 생각났습니다. 큰 파도를 향해 스틸을 즐기며 파도를 타면 더 이상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놀이의 대상이 됩니다. 고희라는 사바세계에 그리고 운문사라는 바다에서 저는 마치 가슴을 조이며 파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도를 잘 타든 못 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파도를 여유 있게 즐기며 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철 파도를 잘 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어른 스님과 상반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파도를 함께 타준 도반스님들 “고맙습니다.”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와 함께 앞으로 치문의 남은 철도 『치문』을 통해 수행자가 나아가야 하는 바를 몸과 마음에 물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강석과 같은 마음

범성 / 사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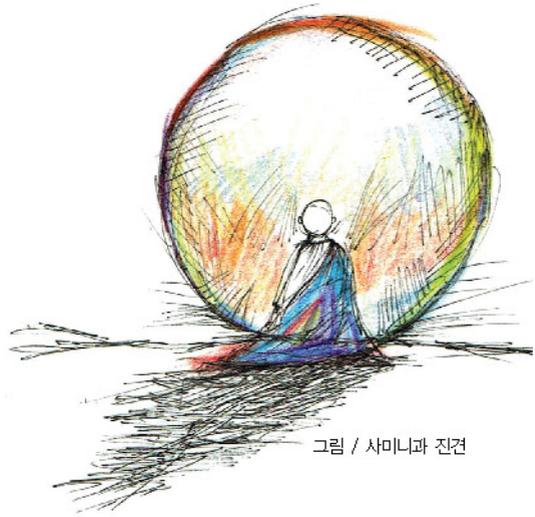


그림 / 사미니과 진건

가나긴 추위를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계절을 넘어서 이제는 푸르고도 푸른 숲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시절을 지나 아름답게, 푸르게 변해가는 자연을 보며 새삼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며,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저 작고 마른 나무도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데, 나는 어찌하여 번번이 생각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가.’ 한편으로는 마치 유리와 같은 나의 멘탈을 돌아보게 합니다. 유리멘탈이란 깨지기 쉬운 정신력과 마음을 말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쨌든 자신의 감정을 눌러서 표출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습관처럼 주변의 이목을 심하게 의식하고 살던 버릇 때문에 한동안은 내가 이 삶을 사는 건지, 남 때문에 사는 건지 헷갈릴 지경에 이르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도 만족스럽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란 무엇인가?’

하루하루 숨이 턱턱 막혀 와서, 정말 자유가 절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완벽해 보이기만 하던 제 삶은 자신이 주체가 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이나 일에 휘둘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멋대로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물음들 속에서 정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애써 구하려 했지만 분명 그 답은 날마다 변해서 어제까지는 행복이라고 느꼈던 일이 오늘이 되면 불행의 씨앗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방금 전까지도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방향 끝에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행복, 진짜 자유.
진짜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언제나 가슴 속에 두고 있었던 한 마디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가슴 한편을 지키고 있는 단 한 마디.
“틀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
‘틀 안에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나?’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말이 이해가 되던 때 긴 방황을 끝내고 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본인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누굴 도와주나’ 하며 비관적으로 마음을 꽁꽁 묶어 두었는데, 그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도 쉽게 뒤집어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출가하고 처음 접하는 대중 생활 속에서 저의 멘탈은 종이같이 구겨지고 유리처럼 깨지곤 했습니다. 누가 잘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채찍질을 하고 괴롭히고 상상을 내어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자신에 홀로 좌절하고는 했습니다. 늘 하던 그 습관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대중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거짓말 같게도 밖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나의 온갖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정말 탄성이 절로 날 정도로 큰 발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순간은 마음을 제대로 볼 줄 몰랐던 제가 스스로를 혹독하게 괴롭히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었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홀로 마음의 종이를 수십 번 수백 번 찢고, 마음의 유리를 깨었다 붙였다 다시 깨고 붙이기를 반복 또 반복.

지금 저의 목표는 깨지지 않는 멘탈,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체로, 금강석이라고도 한다는 다이아몬드 멘탈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마음이라 할 것도 나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저와 같은 유리멘탈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 용기 내어 이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존경하는 스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는 모두 연습생이야. 연습생이 서투른 건 당연해!” 라고요.

저는 오늘도 연습생으로서 금강석 같은 마음을 위해 정진 또 정진 중입니다.

우리 함께 운문사리는 부처님의 가피 가득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연습생이 됩시다. ☸



지금 이 자리에서

향광 / 사교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누각에 앉아 가만히 귀를 열어본다.
고요한 산의 적막을 깨우는 새소리,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유롭다.
참으로 순수하다. 그래서 존경스럽다.

해야 할 때 행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가장 순수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해야 할 때 귀찮아 하고, 해야 할 때 핑계거리를 찾고,
해야 할 때 번뇌망상에 매몰되어 빠져나오기를 게을리하고,
이런 자신을 발견할 때의 허탈함은 밝아오는 이 새벽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구나.

지친다.

도량의 고요함에서 이내 서서히 드러나는 무기력에 또 다시 지친다.

시끌벅적한 대상들 속에서 시끌벅적하게 살다가 고요한 곳으로 오니 무기력한 자신이 가엾게 느껴진다.

매번 이 양자의 번뇌 위에서 쉬지 않고 춤을 추고 있구나.

애써 옛 조사와 큰스님들의 말씀이라도 들을까 책 제목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다. 그러다가 책을 열고 어느 글귀에서 탁! 하고 막히면 힘이 솟구치기는커녕 자학만 할 뿐 무기력한 마음은 더욱 침전되니 이를 어찌하라.

습관이다.

잘못 길들여진 습관이다.

하나의 습관이 성립이 되기까지 섬세하고 미묘한 여러 원인이 오랫동안 서로 영켜 작용한다.

무기력이라는 습관에 자꾸 함몰되고픈 원인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저 알아차리고 함몰되지 않으려는 실행이 필요할 뿐.

그래서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쉽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 반복.
미안하다 반복아. 너는 나의 가장 큰 스승이다.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가.
일상의 행위에 대한 집중이다.
주어진 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전부이다.
가장 쉬운 일이지만 한 번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상의 노예, 반복의 노예로 전락된다.

나는 정녕 노예인가.
무기력이 한번 침투하니 이 일상은 수행이 아니다.
무기력이 대체 무엇인가.
한쪽에 하나의 것이 발생함에는 그 반대편에는 분명 또 다른 하나가 공존하고 있다.
활력.
지금 나는 활력의 반대편에 치우쳐 분별의 경계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좌우로만 치우치기를 놀이터의 시소 타듯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참으로 어렵구나.
극단으로 치우칠 때 빠져나올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리라.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잊지 말자. 치우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치우침도 반복이요, 부여잡는 마음도 반복이라면 억지로 애쓰지 말고
'내가 또 극단으로 빠졌구나...' 하고 툭! 하고 놓아버리자.
이렇게 놓아버릴 뿐이다.
애써 노력하려는 의식적인 생각을 일으켜 새로운 분별의 한켠을 만들지 말고
그저 손에서 무거운 짐 바닥에 놓아버리듯 놓아버리자.
그렇게 또 다시 연습하련다.

사실 가야 할 먼 길도 있지 않다.
'행행본처 지지발처行行本處 至至發處' 라고 했던가.
가도 가도 본래의 곳이고, 이르러도 이르러도 출발한 곳이다.
지금 두 다리 딛고 서 있는 이 곳이 전부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잘 하자.
이른 새벽 망설임없이 지지귀는 새처럼
온전히 그 순간을 순수히 살 수 있는 그때까지 마냥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

영화 쿤둔을 보셨습니까?

대호 / 대교과

영화 쿤둔은 1997년에 제작되어 2000년 쯤 개봉되었으니 저는 약 20년 후에야 보게 되었네요. 13대 달라이라마가 서거한 후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로 지목된 어린아이가 18세에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과정을 통해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를 보여주는 이 영화는 티베트를 다룬 이야기가 늘 그렇듯 경건한 신심을 갖게 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최고 지도자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다시 환생한 분이라는 티베트인의 오롯한 믿음이 티베트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그 믿음에 부응하는 달라이라마의 모습은 과연 왜 불교가 티베트를 통해 세계로 강하게 전파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3대 달라이라마가 서거하고, 섭정인 레팅 린포체(영적 스승)는 역대 달라이라마 대를 이어 환생자의 환영을 보게 되고, 오랜 탐색으로 국경지방에서 어린 라모를 찾아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서로운 조짐을 보였고,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친 영리한 아이는 5세에 쿤둔으로 즉위해서 아주 치열한 역사의 한가운데 놓입니다. 2차 대전 후 공산화된 중국의 침략으로 무기라곤 창과 방패뿐이던 티베트 국민들이 참혹하게 죽어갈 때 달라이라마는 어린이를 벗어난 사춘기 소년이었고, 암살 위협을 피해 망명길을 올랐을 때 고작 18세였습니다.

무량한 복과 지혜를 갖추고, 중생구제 원력에 의해 환생한 저 거룩한 성자의 역경의 바람이 저럴진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 내가 지었을 나의 업풍이야 어떻겠습니까? 그 바람이 깃발을 흔들고, 또 바람이 불어와 깃발을 날려 버리더라도, 그 흔들림이 내 마음이란 걸 바로 보려 합니다. 그 바람이 내 살을 뜨게 하고, 감기에 걸리게 하고, 내 살림을 날리려 해도 기꺼이 맞이할 것이고, 다시 일어나리라 다짐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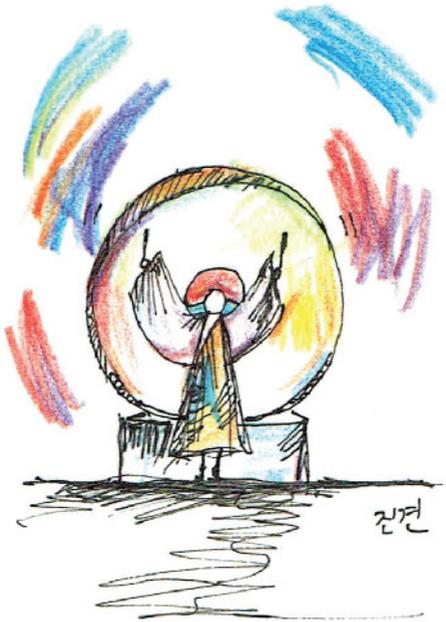
“당신은 부처요?” “나는 물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요. 물 위에 비친 달처럼 나를 통해 그대들의 선한 그림자를 보길 원할 뿐이요.”

18세의 달라이 라마가 망명길에 국경을 넘으며 젊은 군인에게 한 말입니다. 금강경 오가해 야 보승이 겹쳐 떠오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은 오직 그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니 이 사실을 깨닫고 보면 그림자와 그림자가 다른 것이 아니다. … 보신과 화신은 진짜 부처님이 아니라 전부가 다 그림자이지만 진짜 부처님

을 깨달으면 그림자도 다른 게 아니로다.”

가장 정신적 영역의 달라이라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극도의 물질적 문제에 봉착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문화대혁명이란 이름 아래 벌인 대학살. 1959년 독립시위 때엔 무자비한 진압으로 티베트 인구 20%인 120만 명이 죽고, 4500여 개 사원이 폐쇄되고, 수많은 티베트인이 행방불명되고 투옥되었지만 달라이라마가 선택한 방법은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원수를 연민의 대상으로 끌어안아 또 다른 폭력의 희생자를 차단함은 과연 그가 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란 고정된 실체의 환생이라기보다 자비심과 자비행의 가장 강력한 파급자라는 말입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 정신과 물질, 공산당과 달라이라마, 폭력과 비폭력. 누구의 승리입니까?

티베트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중국은 히말라야라는 군사적 지붕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티베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티베트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니 티베트의 전통, 정신을 없애려 합니다. 티베트이든 중국이든 시대 흐름과 정치적 지리적 이데올로기에 그형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동업은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 영화 속 쿤둔의 대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달라이라마는 현재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보다 홍콩 같은 완전자치제로 주장을 바꾸고, 여전히 중국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아 세계인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세계를 얻은 달라이라마의 승리일까요?

영화 속에서는 理와 事, 정신과 물질, 강자와 약자, 선과 악이 서로가 서로에 맞출 뿐 누구의 손을 들지 않은 채 어린 달라이라마의 눈을 통해 담담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적도 무無로 돌아가고, 나의 벗도 무無로 돌아갈 것이며, 나 또한 무無로 돌아갈 것이니, 만사가 무상하다. 기뻐던 것은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한번 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대립되는 가치는 항상 관계 속의 이름이지만, 고통을 마주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달라이라마는 너무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서원을 내 서원으로 따라해 봅니다.

부디 전생에 쌓은 내 선업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당신들의 부처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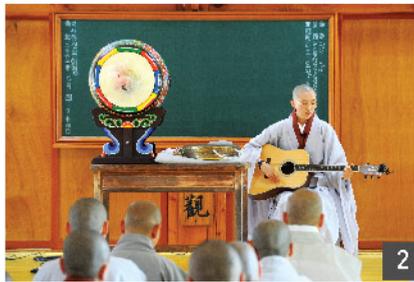
여름나기

편집부

행복의 지도 자비회사



제39회
여름불교학교
포스터





- 1 始終如一, 청풍료의 입선독송
- 2 염불대회 준비 중인 치문반스님
- 3 치문반 자색 도우미 스님들과 함께
- 4 백중기도 중 매일하는 금강경독송
- 5 윤문사의 여름직물
- 6 화엄반, 지금 이 모습으로
- 7 농소화 아래 사집반
- 8 단오산행 중인 사교반 스님
- 9 화엄반 단오산행 중 용장사계곡 삼층석탑
- 10 염불대회 준비 중인 사교반스님



나의 ‘如是降伏其心’

정안 / 사교과

출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처음 읽은 경이 『금강경』이었습니다. 금강경은 언뜻 보면 평범해서 알기 쉬운 거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선지공안禪旨公案 즉, 화두가 담겨 있는 심오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독 저의 마음을 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世尊하 善男子善女人이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인댄 云何應住며 云何降伏其心하리잇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발한 이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 구절을 통해 제 삶 속에서의 ‘云何應住, 云何降伏其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삶의 본질이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生老病死 외에도 수없이 많은 괴로움이 존재하지만, 저는 그중에 나이가 들수록 짝 막혀가는 저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 들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너그러워지고 행동도 더욱 성숙해지고, 진짜 어른답게 되어 가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점점 더 남들과 소통하지 못해서 고집불통에, 호통만 치고 훈계를 하려는 사람이 되어가지요. 이른바 ‘꼰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그럴지도 모릅니다. 희한하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말도 안 되는 일에 고집을 부리거나, 왜 그렇게 주변사람들을 들들 볶는지, 애써 호르몬 문제라며 구차하게 덮어 보지만 아무도 안 속습니다. 괜히 쓸데 없는 일에 지존심을 세우고 마음을 쓰다 보니 몸은 더 아픈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니 온둔형 외톨이가 될까봐 겁이 나고, 이래서 고독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후회한들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되나 싶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뛰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저에겐 노화를 멈추게 하는 특허기술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복인지 출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금강경』 속 ‘云何應住, 云何降伏其心!’ 바로 이 구절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항복 받아야, 남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답을 무착과 규봉 스님은 네 가지 마음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광대심廣大心입니다. 광대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체중생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보호하며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제일심第一心입니다. 일체중생을 모두 포섭하여 그들의 고통을 다 해소하고 무여열반으로 이끌어 주는 보살행을 말합니다. 비록 내가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중생들이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이끌어 주려는 노력이므로 가장 어렵고 실천하기가 힘든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상심常心입니다. 글자 그대로 '항상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임제 의현은 『임제록』에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본래 공하여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청정심'을 유지하는 것, 즉 '평상심'이 부처의 현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전도심不顛倒心입니다. 중생이 '나는 부처가 아니다', '공부를 해도 부처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비하를 하고 스스로 중생이라는 차별심과 분별심을 내는 것이 전도심입니다. 그 전도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게 부전도심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마음(四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눈앞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남을 위해 이런 마음들을 사용할 줄 모를 뿐입니다.

출가를 기점으로 예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본다면, 그 전보다 덜 괴롭고 조금 더 행복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행복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항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말 자체의 뉘앙스가 뭐랄까, 누군가에게 처절하게 진 것만 같고, 뭔가 굴욕적인 거 같아서 반감이 들긴 했지만, 『금강경』을 통해 '행복'은 내 안에 철통 같은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을 부수어 내고, 광대심·제일심·평상심·부전도심을 내어 마음을 조복調伏받아서 나와 타인을 배려하는 행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후회와 괴로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일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건, 마음을 제대로 행복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음을 행복받지 못한 건, 불법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출가만 하면 쉽게 믿어질 것만 같고, 금방이라도 도인이 될 것만 같았는데,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믿지 않고는 교리敎理조차도 알 수 없고, 행行도 뒤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 선택들이 모여 제 인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나는 어떤 마음을 택하여 살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갈피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제 선택에 후회하고 투정이나 부리는 철부지 짓은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如是降伏其心'에 대해 사유하며 어떠한 괴로움에도 쉽게 동요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문사 해외유출 성보문화재 <칠성도>의 귀환

진광 / 운문사 주지

1. <칠성도>의 환수과정

운문사에서 과거 어느 시기 반출되었던 <칠성도>가 2018년 4월 11일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운문사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귀환이다. 이를 위해 미국 뉴욕 불광선원(회주 휘광)과 문화재청 김미경 문화재감정위원의 협조는 물론 운문사 대중들의 노력과 염원이 있었다. 운문사 <칠성도>는 칠성각 내부에 봉안된 치성광여래도 및 칠성여래도 7점 중 1점으로 조선 19세기인 1868년에 조성된 불화이다. 칠성도는 일제강점기 무렵 알 수 없는 시점에 미국으로 반출되어 뉴욕의 한 경매시장에 나온 것으로 지난 2월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해외 경매에 나온 우리나라 문화재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존재가 알려졌다.



운문사 칠성각 <칠성여래도>, 1868년, 비단에 채색



운문사 <칠성도> 공개 환수식

특히 환수된 운문사 <칠성도>는 중앙의 치성광여래도와 함께 칠성여래도 7폭에 나누어 그려진 것 중 1점이다. 화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사불산 화파四佛山 畫派의 화승 위상偉相과 봉건奉典이 조성하여 운문사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단바탕에 채색(緞本彩色)된 세로 129.5cm, 가로 74.3cm로 유리액자에 넣어 보관되어 전반적으로 화면의 손상이나 안료 박락 등으로 인한 변질부분 없이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이다. 환수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청도 운문사 <칠성도> 1점 환수 과정

2018년 2월 28일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단, 국외경매시장 모니터링 중 발견 - 도난 여부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에 관련 사실 전달
2018년 3월 5일	조계종 문화부, 운문사 종무소에 불화 존재 알림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김미경 선생이 운문사 불화 여부 확인
2018년 3월 7일	운문사역사문화관 건립추진단 월례회의에서 관련사항 논의 - 조계종 문화부 사진자료 제공 - 경매를 통한 매입 방안 진행 - 문화재청 김미경, 국외소재문화재단과 종단 문화부에 공조협조 요청
2018년 3월 9일	종단과 국외소재문화재단, 운문사는 불화 환수를 위한 교류협력 협의 - 회의 : 종무원 문화부, 16:00시 - 참석 : 종단 문화부 이용운 팀장 황재욱 주무관 운문사 원효 교무스님, 문화재청 김미경 국외소재문화재단 팀장 김상엽, 김동현 차장 등 6명
2018년 3월 10일	미국 뉴욕 현지 불광선원에 협조 요청 - 운문사 원효 교무스님과 불광선원 휘광 회주스님 실시간 전화통화 - 실무 협의사항 김미경 선생과 불광선원 성화스님 실시간 통화체제 구축
2018년 3월 18일	국외소재문화재단 김동현 차장, 미국 뉴욕 불광선원 현지 급파 - 3월 21일 본햄스 경매시스템 및 관련사항 자료 설명
2018년 3월 21일	미국 뉴욕 본햄스(Bonhams New York) 경매에 응찰 - 현지시간 : 13:00~18:00 최종 낙찰 - 현장참관 : 불광선원 휘광 회주스님, 성화 스님, 신도(큐레이터) 협력, 국외소재문화재단 김동현 차장 공조시스템 가동
2018년 3월 22일	운문사 <칠성도> 뉴욕 본햄스(Bonhams New York) 경매회사에서 불광선원으로 운송
2018년 4월 3일	미국 뉴욕 불광선원 보관된 <칠성도>, 포장 및 운송업체에 출납
2018년 4월 11일	운문사 <칠성도> 1점 인천공항 귀환 - 무진동 전문차량 이용, 종단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 - 불화 회포 및 컨디션 체크후 수장고 격납
2018년 4월 13일	운문사 <칠성도> 환수 공개식 개최 - 일시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오전 10시 - 참석 : 운문사 진광 주지스님, 원효 교무스님, 지범 재무스님, 은광 강사스님, 동우 편 집국장스님, 자운 종무국장스님, 운문사신도회장 등 3인, 문화재청 김미경 - 내용 : 칠성도 공개환수식 및 기념촬영 후 기자 질의응답 유물포장 후 운문사로 출발
2018년 8월 17일	- 칠월칠석 봉안식 및 대중공개

2. <칠성도>의 내용 및 형식

일반적으로 <칠성도>는 칠성七星을 불교의 호법선신으로 수용하고 이를 의인화하여 묘사한 불화를 말한다. 봉안 위치는 불단 중앙에 북극성을 불격화한 칠성광여래 1폭을 중심으로 좌우에 칠성여래 7점과 자미대제 및 28성군을 묘사하여 나란히 배치한다. 칠성도는 천재지변을 관장하고 난리와 질병을 다스리며 재앙을 물리치고, 특히 자식 낳기를 원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원을 들어준다고 하여 조선 후기에 민간에 성행하였다. 도상적으로 본존인 칠성광여래의 특징적인 모습은 손바닥에 금륜金輪이나 약합藥盒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환수된 운문사 <칠성도>의 화기¹⁾를 살펴보면, 활동 사례가 확인되는 인물이 눈에 띈다. 우선 증명비구 경우警愚이다. 그의 당호는 철허당徹虛堂으로 주로 하은위상霞隱偉相이 수화승을 맡은 작품에서 증명승證明僧으로 등장한다. 1863년 통도사의 백련암 <석가모니후불홍도>를 비롯해 1864년 통도사 소장 <현왕도>, 1868년에 운문사 <원광국사진영>, <원웅국사진영>, <보양국사진영>의 중수, 이후 1871년의 운문사 대법당 <신중도(수화승 德雲永崇)>와 분황사 보광전 <신중도>조성에 모두 증명승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어인 비구 위상偉相과 봉전奉典이 기록되어 있다. 위상은 19세기인 1855년부터 1890년까지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대승사 사불산 화파의 화승이다. 조성작품에 따라 당호인 하은당霞隱堂과 범명을 함께 적기도 한다. 범명은 기상岐祥·기상基相·위상偉相(祥)·응상應祥 등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다. 즉 작품에 따라 활동 시기별로 다양한 범명을 사용하고 있다. 현존 작품 중 위상偉相으로 표기한 시기는 1863년부터 1870년 사이이다. 현재 운문사에는 1868년 <원광국사 진영>, <원웅국사 진영>, <보양국사 진영> 및 관음전 <관음보살도>가 이때 조성된 것으로 볼 때, 해외로 유출되어 환수된 운문사 <칠성도>의 조성시기 역시 1868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화승인 봉전은 1871년 운문사 대법당의 <신중도>조성시 수화승인 덕운영운德雲永崇과 관허의관寬虛宜官의 수하에서 불화를 조성하였고, 이후 1901년 서울 연화사 <천수관음도>와 <신중도>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환수된 <칠성도>는 조선 후기 칠성각 봉안의 <칠성도> 여러 폭 가운데 <칠성여래도>각 폭 중 1점이다. 특히 화기에 기록된 수화승 위상偉相의 현존 작품 중 대체로 시기가 이른 작품이다.

운문사 칠성도의 형식은 세로가 다소 긴 화폭에는 상하 2단 구도로 나뉘어 상단에 병풍을 배경으로 결가부좌한 칠성여래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아래쪽에서 솟아오른 연화대 좌우로 권속을 배치한 구성이 돋보인다. 위쪽 상단에는 좌우로 나누어 적색 풍대가 그려져 있다. 중앙의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칠성여래의



<칠성여래도> 화기 부분

무릎 아랫부분으로 양손으로 홀을 잡고 서 있는 천자天子와 공양물을 받쳐든 쌍계머리의 동자童子가 좌우로 나눠 시립한 구성이다.

채색은 적, 녹색, 청색이 주조색을 이루며 안정된 구도와 밝고 차분한 색조의 화면에서 가볍고 화사한 색감이 특징이다. 특히 5폭 병풍을 배경으로 천공에 꿰뚫어진 주홍색 위의 구름문 구성은 위상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1868년의 운문사 관음전 <관음보살도>의 이중광배 주변에 표현된 구름문과 일치하며, 칠성여래의 한 손에 놓인 정병淨瓶은 <칠성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외에도 위상의 작품 중 높은 연화대 위에 본존을 묘사한 사례는, 1884년 용문사 <아미타후불도>와 <석가모니후불도>가 있다. 연화대 형식이나 채색, 좌우협시의 배치 등 위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3. <칠성도> 환수의 의미

첫째, 해외유출 운문사 정보의 첫 환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환수된 운문사 <칠성도>는 운문사 경내 칠성각의 좌우측벽에 봉안되었다가 분실된 8점 중 유일하게 돌아온 것²⁾이다. 반출된 지 60여년 만에 환지본처還地本處하여 운문사 조영당에 임시 봉안되었다. 이번 <칠성도>의 귀환으로 운문사 칠성각의 불화 봉안 사실 및 1868년의 불화 조성불사에 대한 학술적 자료의 일부가 보완된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계종단, 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운문사의 긴밀한 공조시스템의 운용을 통한 성공적 결과로 운문사 <칠성도>가 해외 정보문화재 환수의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셋째, 운문사 정보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첫 걸음이자 정보박물관 건립의 당위성과 의지를 확인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칠성도>의 환수와 함께 다른 운문사 정보의 환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것은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며 유출된 나머지 <칠성도>들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들을 기다린다. 아울러 앞으로 많은 해외 유출 정보문화재가 환수되어 정보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신심을 고취시키고 불교정보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1) [畫記]

雲門寺新畫成/奉安

證明比丘警愚/諷觀比丘優曇/禪臨比丘奉性/金魚比丘偉相/奉典

化主比丘尼太一/施主/癸酉生崔在儀/坤壬午生李氏/子乙未生昌相/

坤戊戌生李氏/別座比丘典毅/聖虎/供養主比丘/奉性/靈誌/淨禪性悟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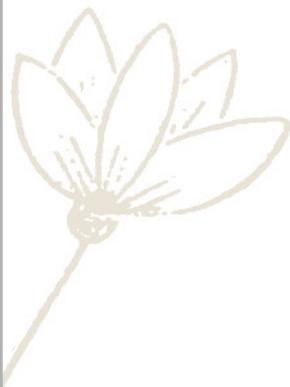
- 2) 1932년 3월 16일 고신된 조선총독부 관보의 운문사 정보대장에는 동치 7년(1868) 조성된 7점의 칠성도가 등재되어 있다. 이는 환수된 칠성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운문사 칠성도의 조성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이 불화의 유출이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사회 혼란기였던 1950~196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이너마이트 붓다

강호진

우리의 이야기는 폴 빌라드(Paul Villiard)의 <이해의 선물>(The Gift of Understanding)에서 시작된다. 중년에 접어든 세대는 이 소설을 국어교과서에서 만났을 테고, 이후 세대는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라고 하면 고개를 주억일지도 모르겠다. 소설은 화자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두 개의 일화로 짜여 있다. 첫 번째는 4살 무렵의 화자가 위그든 씨의 가게에서 사탕 몇 개를 고르고 은박지에 싼 버찌씨 여섯 알을 내밀자 위그든 씨는 너무 많다며 2센트를 거슬러주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화자가 어른이 되어 열대어 상점을 운영하는데 어린 남매가 찾아와 30달러어치 열대어를 사고 20센트를 건넨다. 화자는 위그든 씨를 떠올리며 철없는 남매에게 2센트를 거슬러 주면서 소설이 끝이 난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그것을 지켜주려 애쓰는 어른,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따스한 마음에 몽클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류의 감동은 라디오의 청취자투고나 인터넷 게시판의 미담에서도 느낄 수 있다. 만약 문학의 존재의미가 작가와 독자 그리고 세상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확장시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무의식과 은폐된 진리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데 있다면 잔잔한 감동만으로 이 소설이 주는 '선물'을 오롯이 향유했다고 믿기엔 이르다.

그렇다면 소설의 감추어진 의미를 알기 위해 난삽한 철학용어로 가득한 문학평론이라도 뒤져야 하는 것일까? 그럴 필요는 없다. 짧게 간추린 위의 이야기에 세상이 은폐해 온 진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바로 2센트를 돌려주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는



다면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인 신비가 현상이나 사물 너머에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실을 무시한 채 보이지 않는 정스럽고 영원한 무언가를 찾아 나선다. 우리가 어리석고 아둔해서일까? 도리어 영악하고 교활해서 생기는 문제다. 집안의 보물을 놓아두고 밖으로 나돌면서 헛고생을 자초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념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그 진실이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변경變更으로 이끌 수 있음을 눈치 채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삶의 공통기반으로 삼고 있는 '환상'은 그렇게 탄생한다.



매정하게도, 2600여 년 전 세상을 떠받쳐 온 환상의 실체를 폭로한 이가 있었다. 붓다는 육신이 죽어도 파괴되지 않는 영혼(아트만)이 있다는 베다의 말은 사기라고 일갈했다. 붓다가 보기엔 그것은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공모한 입 맞추기였다. 아트만과 브라흐만이란 상상적 질서에 자신을 기입하고, 그렇게 지어낸 거짓말을 스스로 진실이라 믿어버리는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환자들에게 붓다라는 의사의 등장은 커다란 재앙이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다.”라고 선언한 니체가 플라톤 이래로 이어진 서구철학의 이원론을 폭파시켰듯, 붓다는 환상의 기반을 붕괴시킨 것이다. 붓다는 ‘나’란 실체로부터 감각과 지각이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지각을 통해 ‘나’라는 허상이 생긴다고 천명했다. 결국 아트만이란 사실의 전도顛倒,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함을 밝혔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학자들이 무아를 ‘비아非我’라고 주장하거나, ‘현상적 나’는 있지만 ‘실체적 나’는 없다고 설명을 늘어놓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드러난다. 대승 불교의 ‘참나(眞我)’는 무아가 아니라면서 ‘유有’와 ‘무無’ 혹은 ‘시是’와 ‘비非’란 지구字句에 매달리는 방법론은 ‘나’란 관념과 이분법을 떠나지 못했음을 드러낼 따름이다. 신이 있다는 ‘유신론’과 신은 없다는 ‘무신론’은 얼핏 화해 불가능한 극단적 대립으로 보이지만 실은 신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사이 좋게 공전하고 있는 두 개의 행성에 다름 아니다. 이런 사이비 논쟁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탁월하게 논파해버린 이가 용수龍樹인데, 오늘날 불교학은 근대성과 합리성이란 포장지만 두르고 있을 뿐 용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런데 베다가 아트만을 내세워 은폐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존재에 대한 물음이었

다. 아트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생길 리 만 무하다. 남이 규정한 대로 따르고 운명을 믿으며 사는 삶은 뜻밖으로 편안하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집단과 대중에 섞여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일삼는 인간의 행태를 비판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나 붓다가 해체한 폐허 위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이들,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소수의 용감한 이들이 있었다. 소위 사문沙門이라 불리는 이들은 멀리서 찾지 않았다. 그들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는데, 망각하고 있던 호흡에 집중했고, 무더진 감각들을 깨우고, 기존의 지식과 관습에 독한 회의를 품었다. 그들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매순간 경이롭고 신기하게 자신을 보려 애썼다. 자신에게 깊이 침잠할수록 자신을 벗어나는 기묘한 역설을 통해 그들이 깨친 것은 연기법, 즉 세계의 실상이었다.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소설에서 놓친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이야기의 감동적인 부분을 젓혀두고 고작 2센트란 돈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선 갓 태어난 아이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 눈이 아니고선 2센트에 은폐되어 있는 실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전에 언어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단어를 단어로만 떼어내 생각할 때 묘한 느낌에 빠져든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나 말하다보면 어느새 '엄마'라는 말이 낯설어지는 경험 말이다. 이때 우리는 '엄마'라는 단어의 형태나 음성이 실제 나의 엄마와 하등의 필연적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를 언어의 자의성이라 한다. 그렇다고 사물이나 관념이 먼저 존재하고 이름은 이후에 붙여졌다는 식으로 자의성을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단어가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미신의 원천이 된다. 단어는 텅 비어 있다. 단어의 의미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연기적으로 생성될 뿐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세상에서 돈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떠받드는 물신物神이다. 돈은 존재의 토대이자 세상의 근본가치로 대접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인물들이 인쇄된 자그마한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신사임당이 그려진 오만원권 지폐는 해외에선 알록달록한 종이에 불과하단 사실이 더 선명해진다. 이 돈으로 물건을 사려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 신사임당이 그려진 종이가 각종 상품과 직접적으로 교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이란 특수한 조건에 의존한다. 돈의 가치는 신사임당이 인쇄된 종이에
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조건의 연기적 산물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실제
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돈이 해당상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실체라는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화폐의 유통은 한낱 종잇조각을 만능의 상품이라 믿는 공
동체의 환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돈은 사용하는 이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종교다. 그것도 가장 열렬한 추종자를 거느린 지구 최대의 종교인 것이다. 미국
달러에 쓰인 "In God We Trust."란 문구가 이를 증명한다. 오늘날 종교인과 학자들은 의도적이
든 아니든, 세상을 지배하는 돈이라는 종교를 도외시함으로써 지루하고 뻔한 해석에 안착한다.
예수가 "하느님과 맘몬(돈)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것이나, 붓다가 출가사문에게 경제
적 생산을 금지한 것에 담긴 혁명성은 읽지 못하고 '청빈'이나 '소욕지족少欲知足' 같은 하나
마나한 말들만 웅얼거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설 속 2센트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었다. 위그든 씨가 거슬러준 2센트의 의
미는 무엇일까? 위그든 씨가 한숨을 내쉬며 금고까지 걸어가서 가지고 온 그 2센트 때문에 사탕
가게에서 일어난 일은 선의의 증여나 소박한 물물교환의 성격을 벗어나 버린다. 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화자(I knew nothing of money at that time.)에게 돈을 거슬러주는 행위는 상징적
이다. 동전이 아이의 손에 떨어지는 순간, 아이는 화폐거래의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리
고 다시는 버찌씨가 통하지 않으리란 걸 깨닫게 된다.(I don't remember using cherry-stones a
second time.) 아이는 오직 돈이 가치의 척도가 되는 화폐의 세계, 환상으로 은폐된 세상으로 진
입하는 것이다. 그 환상은 성인이 된 화자가 어린 남매에게 2센트란 부채를 전달함으로써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윤희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계속 피해왔던 아픈 질문과 대면해야 한다. 돈의 물신성과 실제성에 대한
신앙을 간직한 채 근본무명을 타파해서 성불할 수 있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기에 우
리의 환상은 아직 진행형이다. ❀

강호진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
정을 수료했다. 『한 방울의 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법』, 『10대와 통하는 불
교』, 『10대와 통하는 사찰벽화 이야기』를 썼고, 『올해의 청소년 도서』와 『올
해의 불서 10』을 수상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잠시 일하
다, 현재는 글쓰기와 강의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Active Hope 실천하는 희망

유덕 / 한문불전대학원

이 책의 저자 조앤나 메이시(Joanna Macy) 박사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원에서 주최한 “재교감 작업(The Work that Reconnect)”이라는 워크숍에서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회색빛 머리카락의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담하고 온화한 존재감이 교실을 채우고 있었고, 학생들은 좌복에 앉아 메이시 할머니를 올려다보거나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앤나 메이시(Joanna Macy)

이 책의 내용은 메이시가 전 세계를 돌며 강연하는 “재교감 작업” 워크숍의 바탕이 되는 책이며, 생태철학과 불교학분야에서 지난 50여 년간 연구하고 활동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지만 인과와 연기의 실체가 그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책은 그저 관념적인 이론을 풀어내고 위협적인 상황을 보여주어 생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거나 혹은 단순하게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자기 계발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생태적인 위기를 조금 더 가까이 바라보자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직면하기 어려워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의 다함없는 원천에서 나오는 존중과 힘을 부여합니다.

책을 열어 목차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핵심, 즉 조앤나 메이시가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한 자락은 감사함입니다. 현대의 사회적 시점에서 주류처럼 보여지는 극단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세상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아 쓸 한 톨에도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는 연기적 관점을 얻게 될 때 크게 전환됩니다. 가슴은 지구와 우주에 대한 고마움과 감

사함으로 가득 차고 이는 곧 우리를 자아 중심적 의식에서 확대된 관계적 의식으로 이끕니다.

감사함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조건적인 감사,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감사, 진리에 대한 감사, 자연의 친구들과 우주만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감사. 나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의 나를 살려 준 여러 유정 무정의 인연들에 대한 감사함 등...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도타운 마음인 감사함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하고, 수용에 대한 응답으로 대상으로부터의 감사함과 지지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대상이 자연이든, 인간이든, 인간 너머의 생명체이든지요.

이 감사함의 마음을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 인간을 뛰어넘는 생명체까지로 넓히는 것입니다. 메이시 할머니가 간결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조상과 후손들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는 생명체의 지원을 상상함으로써 우리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이나 활동 그룹을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세력을 구축하면, 우리는 서로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알아채며 감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메이시 할머니는 아주 단순하게 민들레로 표현하였습니다. 재교감 작업의 상징과도 같은 민들레 그림에서 뿌리는 감사함이며, 줄기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존중하고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들레 꽃은 감사함과 존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새로운 시각, 즉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는 앞의 세 단계를 바탕으로 한 행동, 실천 및 활동입니다. 고통을 바라보고, 실천행을 하다가 지치면 언제든지 감사함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교감작업을 상징하는 민들레 그림

우리가 생명들과 상생하려고 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주류에 속하지는 않지만 가슴을 울리는 작업,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마도 이 책이 유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고, 찾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게 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

배려, 함께 살기

물이 되면 정원에 갖가지 꽃들이 서로 뒤엉켜 있지만, 그들 사이에 다름이라는 것은 없다. 분명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만(相映相入), 전혀 장애 없이(無碍) 각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상호 개개인의 세계(가치·능력·프라이버시)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공존해야 한다. 개별성(一)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전체성(多)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 윤창화

기대치 않은 곳에서 만나는 친절은 삶을 아름답게 보게 한다. 별것 아닌 듯 하지만 문을 열어주거나,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는 친절 등 소소하지만 내가 있음을 알고 배려해주는 행동을 접할 때면 살며시 미소짓게 된다. 나의 존재를 인지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운문사에는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있다. 9시에 대중들이 취침에 들어가면 공부하고 싶은 학인스님들은 '야자'를 선택한다.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 공부시간은 한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무리하면 다음 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공부하는 스님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자습시간내의 규칙이다. 그리고, 큰 방에서 이미 자고 있는 다른 스님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공부가 끝나고 방에 들어갈 때는 모두 모여서 함께 한번에 들어간다. 공부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부하는 이들을 배려하고, 대중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다. 예를, 수업, 입선, 울력 등 하루 일과를 소화하기에도 벅찬 이곳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열을 지어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소소한 감동을 준다. 작은 규칙이지만, 나와 나를 포함한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들어 있다. 각자의 원하는 바를 수용하고, 그 원하는 바가 서로 거스르지 않는 어우러짐의 모습이다. 화염경으로 치면 원융圓融의 모습이다.

아인망처초삼계我人忘處超三界 나와 남을 잊은 곳에서 삼계를 뛰어넘고
 대오진공중법신大悟眞空證法身 진공의 이치를 크게 깨달아 법신을 증득하네
 무영수두화란만無影樹頭花爛漫 그림자 없는 나뭇가지엔 꽃들이 만발하니
 청산의구집전춘靑山依舊劫前春 청산은 옛날 그대로 겁 이전의 봄이로다
 - 운문사 53선지식 예불문 탄백, 『석문의범』

매일 우리는 불이문不二門을 지나서 대웅전으로 가고 오며, 예불을 올리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나와 남을 잊은 곳이란 어떤 곳일까? 우리의 행동에 답이 있다. 불이문을 매일 넘어다니는 우리들. 불이不二,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이 남을 존중하는 것이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길이다.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례한 사람은 바이러스처럼 사람과 조직을 파괴한다. 반면 뛰어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 요인은 정중한 태도였다.” 갑자기 상대의 무례한 언행을 듣게 되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고, 일하거나 공부할 시간을 원망과 화풀이에 쓰게 된다. 반대로 정중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자신감을 얻어 문제해결이 더욱 쉽게 되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남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즉 배려와 존중을 통해 나와 상대의 자존감은 최고가 될 수 있다. 자존감이 지켜지는 곳에서 효용은 최대가 된다. 나와 남이라는 구분적 경계가 아니라, 조화와 포용으로 구분선이 사라질 때가 경제적인 효용뿐만 아니라 바로 교통이 사라지는 순간이 된다.

잠시만 시선을 나의 주변으로 돌려보자.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그 존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신기하도다. 모든 중생이 여래의 지혜를 갖추고 있건만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는 구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나의 일만이 너무나 바쁘고 중요해서 정작 빨리 가는 방법을 외면한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이며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임을 알아 서로 걸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서로를 불안에서 건지고, 우리 안의 부처님을 보이는 길이 된다.

매일 ‘불이문’를 지나게 하고 매일 조석예불문을 독송하게 한 앞선 스님들의 간절한 배려를 생각해 본다. 옆으로 보든 시간을 거슬러 보든 우리는 많은 이들의 배려 속에서 살아가는 중이다. ☸

운문소식



▲ 치문반 자색



▲ 정토회와 국제침여불교연대스님 방문



▲ 하안거 쏘살



▲ 중국불교협회와 한국승가교육고찰단 방문



▲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 6월 6일 중국불교협회 소속 중국 불학원 교수 30여 명이 한국 승가교육 현황 참관 및 한중불교 교류확대를 위하여 한국승가교육고찰단을 구성하여 6일간 한국 승가교육기관을 순회방문 중 운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6월 8일 정토회에서 국제침여불교연대 소속 동남아스님들과 국제 불교 활동가들이 운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륜 스님과 함께 온 스님들은 대중스님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6월 12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7일 사시범공양이 있었습니다.
- 6월 22일 하안거 포살을 봉행하였습니다.
- 6월 25일 단오산행이 있었습니다. 화엄반은 경주 남산을 답사하였고, 사교반과 치문반이 학소대, 사집반이 못골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6월 23~24일 선경바라밀을 주제로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44명의 학인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6월 29일 치문반 자색이 있었습니다. 치문반 스님들이 전을 구워 대중스님에게 공양하였습니다.
- 7월 1일 교화부에서 대자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15명의 학인스님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7월 6일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2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육원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정책 세미나에 학장스님 및 교수스님들께서 다녀왔습니다. 일진 학장스님께서 지정 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 7월 28~30일 제39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행복의 지도, 자비회사'를 주제로 2박 3일간 열렸고, 14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였습니다.
- 8월 3일 법륜비구니 장학회(이사장 명성 스님)에서 제9회 법륜비구니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6명의 비구니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8월 4-5일 임영애 선생님의 '불교미술특강'이 선영당에서 있었습니다.
- 8월 5일 자자 및 방학공사가 있습니다.
- 8월 6일 ~ 9월 11일 36일간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외주신 분

- 정해옥 • 윤덕자 • 하옥희 • 박영훈 • 김주환
- 윤금자 • 송인림 • 김형태 • 조옥주
- 철원 부연사 • 광주 연화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 - 01- 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밥"

- 대원사 공양간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먹이라
 봄에서 한여름 가을까지
 그 여러날 비바람 땀별으로
 익어온 쌀 아닌가
 그렇게 희겁지겁 삼켜 버리면
 어스름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거여

고마움을 아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존재들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내 속에 전체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알면 공손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이것을 '연기緣起' 라고 말합니다.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법입니다.

연기법을 완전히 깨달았기에 최고의 지혜를 갖추셨으며,
 연기를 자재로 설하시기에 위없는 설법자이신 승리자 부처님께 예경올립니다. ॐ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존자님 기도를 통해 기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반복하는 행동은 습관이 되고
굳어진 습관은 성격이 됩니다.
성격은 운명을 만들고
운명은 일생을 결정합니다.

- 설운 대사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2-88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통권 제145호·2018년 7월 31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범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동호 / 편집위원·성경, 우연, 동심, 수완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동호(능소지지 凝素之志) / 삽화·도행, 진건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